

與, 국회의장 중재 거부...원구성도 못한 국회

6월 국정감사 시행 놓고 의견 엇갈려 여당출신 의장·與 원내부대표 대립각

여야는 17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번에는 국정감사 시행 시기를 놓고 충돌이 일어났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법계 원내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담의 연장선 성격으로 최종 일정 확정 기대했으나 여야의 의견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박법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루 전인)16일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의에서 정보위, 예결위 등에 관한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행 시기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원인이 돼 최종적인 일괄타결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는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하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국정감사 시행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6월 중에 국정감사를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 개정 이후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감과 세월호 국조를 연결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여당 측이 내세우는 6월 국감 실시 반대 이유다. 이날 정 의장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 6월25일, 26일이면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해 달라”면서 “기술적으로 25일 이전에는 어렵고 25, 26일에 하면 7월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열을 정도 남기고 7월5일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기술적으로 바뀐지만 받아들이는 생각이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국정감사를 일주일 정도 줄이는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서

“상임위 구성도 제대로 안됐는데 국정감사를 하면 어디를 상대로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원내대표를 두고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의장은 국정감사 날짜를 우선 정하고 규정에 대한 사안은 따로 논의를 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끝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가 상임위 구성되고 곧바로 한 적은 없었다”면서 “당초 약속은 6월 중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장의 설득 정의화 국회의장(왼쪽)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국조 특위, 예비조사팀 구성 의결

전문가·유족 대표 등 46명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다.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참사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인다. 이날 여야는 예비조사팀 구성 과정에서 상대가 추천한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기관보고 일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늦

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완경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기관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특위 활동 기간이 3개월인데, 기관보고를 늦추면 6월 한 달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위해

서라도 기관보고를 이달 안에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깊이있는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같은 당 김 현 의원은 “이달 말까지는 구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대로 기관보고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토론회를 각각 진행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개혁의 길을 묻다

잇단 토론회,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 진단...진로 모색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절반의 지지와 절반의 경고를 받은 야권이 본격적인 진로 찾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결과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당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7·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갈리는 만큼, 발 빠르게 당의 혁신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오영식·최재성·윤관석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 ‘혁신모임’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6·4 지방선거 민심은 어땠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더좋은 미래’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선거 평가 토론회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선거”라며 “새정치연합의 한계를 보여준 선거이며, 집권당의 선방”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당명을 바꾸고서도 이미지 변화가 전혀 없다. 제3당 창당이 무산되고 사실상 흡수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

다”며 “정치적 편의를 위한 합당이었고, 정당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내건 것도 설득력이 없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야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학규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도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세월호 참사 두달, 대한민국을 새로운 길을 찾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참사 후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동아시아미래재단 측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속도와 효율성, 금전과 물질을 증시하는 풍토 전반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6·4 지방선거 참패 후 활로를 모색 중인 정의당도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치유의 길찾기’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 참사 수습에서 진보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당 어려울때 피한 적 없어”

재보선 출마 시사...“박대통령 민주주의 기본인식 결여”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사진) 상임고문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 내각 및 청와대 인적개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 세월호 참사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론’과 내각 및 청와대 인사 실패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에게서 시대의 흐름을 보는 혜안은 커녕 역사에 대한 성실한 인식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가개조론에 대해 “과연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은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개조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해정의 해체와 해수부 안행부의 조직 축소, 소방방재청의 해체, 그리고 국가 안전처의 신설, 그것이 다였다”며 “전하를 바꿀 것 같았던 국가 개조가 기껏 일부 정부조직의 개편

으로 끝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권위주의적 오만함과 불통의 극치였다”며 “급기야 민족공동체의 눈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를 총리로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제 대다수 국민은 절망을 넘어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손 고문은 재보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이 결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경우든 당과 국민,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수원 팔달구 출마를 제안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당의 어려움을, 내가 짐을 지는 것을 피해온 일이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권/창/업/중

- 1층 금용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람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유틸리티센터 등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보증으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시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빛가람동 주민센터

사업지 및 분양사무실

중앙호수공원